

축산교육기관순례 ①



主畜農業을 통해 한국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촌근대화를 통해 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신념하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 축산인들을 양산해 내는 국내유일의 축산대학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찾아 지난 9월 1일 새로 취임한 신임 오세정학장으로 부터 학교 현황을 알아본다.



△ 農者天下之大本을 앞세운 축산대학 농악대

주축농업을 위한 농촌혁명의 기수

본교는 故 常虛 劉錫禎박사가 일찌기 농촌 근대화만이 경제적 건국의 기초가 된다는 굳은 신념에서 농촌에 들어가 主畜 農業을 성공시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

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루어 농촌근대화를 이룩할 희생적인 젊은 지도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59년 처음 제 1기생이 입학할 당시에는 축산학과 30명만을 모집하였으나 현재는 축산학과, 축산가공학과, 낙농학과, 축산경영학과, 사료학과와 '79년도 새로 인가된 수의학과 등 모두 5개 학과로 늘어 한학년 170명씩 전학년 680여명의 대식구로 늘었다. 특히 수의학과는 서울시내 대학에서는 유일한 학과가 되었다.

처음 입학당시 축산과 30명 전원에게 주던 교비생장학금은 이제 전학과에 고루 배치되어 각학년 30명씩 전학년 120 명에게 수업료와 숙식비가 전액 면제되며 이외에 상허장학금, 성신의 장학금, 동문장학금을 위시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 재학생 680

명중 160명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약 1억원 정도가 되어 명실공히 장학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집중적인 실습강화로 정통축산대학의 면모일신

그외 시설면에서도 각종 최신식 실험실 실습기재는 물론 대학교내에 일산 40~50톤 규모의 사료공장시설, 원유 8,500kg/일을 처리하여 시유도 공급하는 실습유가공처리장, 실습을 위주로 햄, 소세지, 스모크통닭 등을 생산해내는 육가공장, 명실공히 대·중·소 가축을 종합적으로 사양할 수 있는 대단위 Model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실제에 부합시켜 명실공히 축산역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집중적

인 실습강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통축산대학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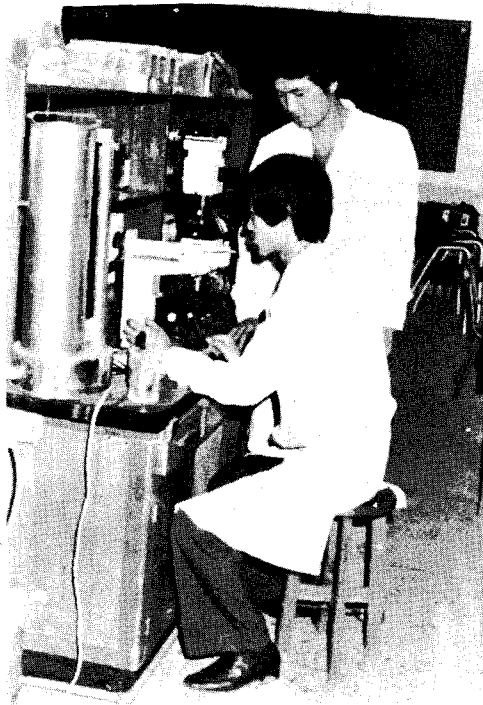
특히 본대학에서는 외국의 델라웨어大(미국), 기생大(독일), 오비시로大(일본) 등과의 자매결연으로 새로운 정보교환과 아울러 세계로 향한 축산대학임을 긍지로 여기며 매년 졸업생의 3~4명을 미국으로, 10여명을 독일을 위시한 구라파로, 20여명을 일본등지로 유학을 보내고 자유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명의 유학생도 받고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강원도평창군 일원의 축산종합개발계획을 위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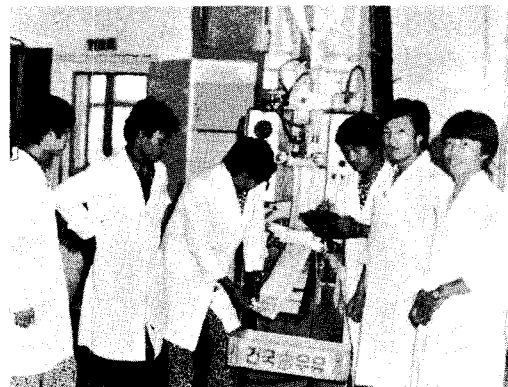
지금 이 시각에도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실습장에서 교수와 학생모두가一心되어 축산을 통해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한다는 신념을 신의 召命으로 알고 정진하고있을 것이라는 오학장의 말이다.

### 자치적인 학술모임으로 향학열 불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역군이 되고자 사명감에 불타는 본교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향학열이 매우 높아 자치적인 모임으로 새벽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Time반, Digest반이, 또 일본어 강좌에는 40여명이 이른 아침 눈을 비비고 나와 책과 씨름하며, 전체학생이 일일영어 공부에



△ 불타는 향학열은 한밤중 어두운 연구실을 환하게 밝힌다.



△ 유가공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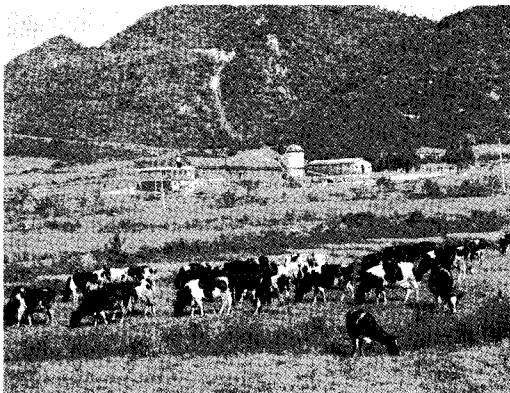
참여하고 있고 단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도서관은 항상 만원이며 연구실은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질줄을 모르고 실험실은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열기로 가득 차있다 한다.

최근 학생들의 자치적인 연구 발표회로 토론은 각 방마다 열기를 띄우고 있다. 이밖에 인격도야와 심신단련을 위해 교양 강좌와 체육모임을 갖으며 특히 200여명을 수용하는 생활관에 입사하여 학생 스스로 자치적인 운영으로 협동생활의 생활화를 기하고 있고 농약대 등 과외활동으로 우리의 문화를 연구하며 農者天下之大本의 의미를 부연하며 나아가 흙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

### 졸업생중 22명이 전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설립 만 20년에 2천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해 학계·업계 각층에서 발군의 능력으로 맡은 바 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외국으로 많은 졸업생이 진출하여 알려진 해외의 박사만도 48명이나 되며 현재 미국, 캐나다에서 30여명, 서독을 위시한 구라파에 25명, 일본에 20명 정도가 수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실습장

학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수학을 끝내고 돌아와 전국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가 무려 22명이나 되어 전국 대학에 안간 곳이 없고 특히 본교에서는 7명의 선배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다. 이외에 KIST 등 연구기관과 전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졸업생의 숫자는 30여명을 상회할 것이다.

지금도 미국·독일·일본 등지에 매년 20여명씩 유학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년의 짧은 연륜에 비해 괄목할 만한 일일 것이다.

이밖에 한국사료협회 79년 6월 1일 통계의 사료기술자 명단에 의하면 전국 배합 사료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중 27개 전국 전문대학이상 졸업생 332명중 본대학 졸업생이 115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내일의 축산역군들로서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며 유가공업계에도 약 200여명의 졸업생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고 동물약품업계와 농협 등 행정관서에도 다수 진출하여 명실공히 한국축산의 역군뿐 아니라 세계축산입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금년도와 같이 전체 기업에 휘몰아치는 불황 속에서도 155명 졸업생중 이미 82명이 취업이 확정되어 9월 18일 현재 53%의 취업율을 보여 신장하는 전국 대학교 축산대학의 전통을 하나하나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자랑을 가졌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뽐낼 것인지는 모르나 진정한 자랑은 훌륭한 전통을 물려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통을 올바르게 이어가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현 축산대학의 과제라고 말하는 오세정 학장의 표정에는 내일의 축산한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축산인들에게 남김없이 쏟아질 정열과 의지가 가득하다. (斗)